東亞日報

編輯人 發行人 印刷人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京城日報社內) 東亞日報社
代表電話② 一一八一番
本報定價一部金三十錢

社說

學徒는 學園으로

一

敎育은 民族의 生命을 繼延하는데 그 眞意가 잇다 그러므로 이땅에 敎育을 어떠케 建設하느냐하는 問題는 곳 우리의 死活의 關鍵이 될것이다 그런데 學園의 最近動靜을 보건대 憂慮로 有意의 士로 하여금 憂心抑치 안흘수 없는 點을 發見할수 잇다 或은 學潮의 影響을 바더서 或은 人材의 缺乏으로 말미암아 一人도 安心하고 勉學이 되지 안하며 一校도 平穩하게 維持되지 못하고 잇을뿐더러 八·一五解放以來 國內에는 政黨政派가 多數에 分하여 잇는 때에 잇어서 그 誘引이 甚하야 純眞한 學徒들은 政爭의 工具가 되어잇는 感도 없지 안타니 光復途程에 잇어서 人材를 無限히 要求하고 잇는 現下 重大時期에 紛亂한 時局으로 말미암아 學徒의 前途가 侵蝕되어잇음은 痛恨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랴.

二

바야흐로 우리의 光復偉業의 前途에는 暗雲이 掩되어잇음을 우리는 深切히 느끼노라 人心이 浮動하고 民衆은 混沌하야 歸定할바를 모르고 彷徨하고 잇는데 이 間隙을 타서 外侮는 우리의 頭上에 加壓되어잇으니 이 非常한 局面에 處하야 三千萬은 한가지로 千秋의 痛憤을 禁치 못하겟거든 하물며 愛國의 至情이 充溢하고 光復의 熱誠이 끌라는 學徒諸君이 어찌 躊躇俳佪할수 잇으리오. 諸君의 至情과 熱誠은 諸君을 學園에서 박그로 誘引하는 衝動을 造成할수도 잇는 일이다. 그 心情을 우리는 理解치 못하는것도 아니다. 그러나 諸君은 한번 冷靜沈着하게 再考三思할것을 勸告하고 시프다.

三

學徒諸君이여! 그대들은 우리民族의 至愛至貴한 存在임을 自覺하여야 한다. 우리는 倭敵의 虐政미테서 過去 三十六年이라는 時間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의 文化, 經濟는 남에게 뒤저서잇고 우리의 光復은 困하여잇다. 이 光復의 이 땅을 爲하야 新生의 이 百姓을 爲하야 오직 囑望되어잇는 바는 後來의 靑年學徒諸君에 잇는 것이다. 이와가치 至愛至貴한 存在를 아모러한 代價도 없이 犧牲한다는 것은 참아 할수없는 일이다. 그대들은 무엇보다도 諸君들인 우리는 俊秀한 人材를 培育保護할 義務를 느끼는 것이니 諸君들은 우리의 將來의 偉大한 事業의 役軍으로서 自矜하고 政爭의 先鋒에서 後退하야 學園으로 復歸할지어다. 그리하야 治國經世의 眞實한 道理로부터 一藝一技에 미처기까지 배우는 것이 國家民族을 爲한 諸君들의 貴重한 責務인것을 自覺하여야 할지니 學徒諸君이여! 學園에 도라가 學業에 힘쓰자.

統一戰線의 障壁崩壞로 反託運動은 大成功

託治支持는 結局無意味한일로됏다

安在鴻氏談

지난二十八日下午一時 反託國動委員長 安在鴻氏는 新聞記者團과 會見하고 그동안 全國的인 反託運動에 對하야 「反託運動은 成功」이라고 如左한 見解를 披瀝하엿다

託治問題를 中心으로 우리의 建國途程에서 甚大한 波紋을 이르켯고 民族陣營에도 分裂對立이 또 하나의 理由로 된것은 至極히 遺憾이엿엇다 反託運動途程에서 多少의 洗鍊되지 못한 行動도 없지 안헛으나 目下에서 美蘇兩國의 態度는 反託하는 朝鮮의 民族總意가 뚜렷하게 反映되엿다 卽託治提案의 責任을 相對便에 떠밀고 제各各 발뺌을 하려하니 이는 反託運動의 效果라고 아니할수 없다 다만 託治案은 아직 實施가 아니된 代身에 撤廢도 아니되엿으니 將來를 爲하야 反託陣營의 結果는 堅固히 無用한 反託示威運動은 必要잇을때까지 禁斷함이 可하다 그와 反對로 託治支持라는것도 無意味한일로 되엿고 民族戰線統一의 障壁은 없어질수 잇게되엿다 이는 참으로 기쁜일이다 各階人士의 覺醒으로 民族戰線統一에 好結果가 잇기를 바란다 【寫眞은安在鴻氏】

廿九日重慶發 해大使朝鮮에

【重慶二十七日發AP合同】 蔣介石氏와 會談하기爲하야 駐蘇美大使「해리만」氏는 蔣介石氏의 盛大한 歡迎의 豫定을 全部變更하고 二十四時間 빨리 重慶에 到着하엿는데 豫定보다 二十四時間 빨리 온 關係로 出迎人은 아무도 없엇다한다 「해리만」大使는 到着後에 蔣介石氏는 副官을 派遣하야 晩餐會에 招待하고 宿所는 自己私宅을 利用하라고 招請하엿다 「해리만」大使는 二十九日(火曜日) 「마ー샬」大將에게 電話로 連絡하야 이때문에 朝鮮으로 向하리라 한다

非革命分子와는 協力不能

籌備會出席中止한 柳林氏談

無政府主義者總聯盟代表로 非常籌備會議에 出席하엿든 柳林氏는 同會議의 現狀에 不滿이 잇서서 出席을 中止하엿는데 此에對한 經緯와 世間에 脫退云云은 浪說이라는 것을 二十八日下午一時 臨政宿舍에서 記者團과 會見하고 闡明하엿다

余는 共產陣營에 對하야 朝鮮에 共產政權을 樹立하는 것이 朝鮮의 現段階가 아니고 民主政府樹立이 우리의 路線이므로 非常政治會議에 共產黨으로서 參加하라고 二三次交涉에 應하엿엇다 그러나 無用한 確執으로 參加치 안흠으로 各革命勢力이 分散的으로 統一工作을 遂行하야 緊急한 內外情勢로 보아서 時日을 보낼수 없으므로 民主陣營의 團結로 統一을 推進시켜서 最後까지 民·共協助에 努力코저 非常政治會議를 開催하게 되엿다 此에 共鳴하야 參席한 것이다 會議는 途中에 中協의 合流를 主張하고 名稱을 改稱하야 國民會議로 하엿으며 領袖를 推戴키로 하엿다 余는 中協은 各黨代表로 獨立을 促成시키기 爲한 協議機關이므로 此를 旣成된 勢力으로 取扱하야 合流云云할 必要는 없고 名稱의 改稱도 建國에 할수 잇으나 籌備會議에서 國民的名稱을 民主陣營偏主會議도 改稱하는 것은 非民主的이며 領袖推戴亦是何一하다 그리고 建國의 重大한 案件을 一任하는 七人又는 五人의 人士는 三千萬의 政權을 樹立하는 革命勢力을 集結시키는 데에 對外的으로 信望잇는 人士를 登場시켜야 할것이다 以上의 몃가지 技術的으로 拙劣한 方法이 余의 意見과 不合하야 出席을 中止한것이며 絕對로 非常政治會議에서 脫退한 것은 아니다 아프로 此의 改善에 努力하야 三千萬의 信望에 萬全을 期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寫眞은柳林氏)

自主獨立만이 肯致

託治提案은 누가먼저 햇든지

타스通信을 읽고 ……元世勳

스티코프大將의 新聞記者會談에서 우리는 莫府三相會議에서 朝鮮에 信託制를 規定한 由來를 알게 되엿다 託治를 美國側이 提案하엿고 第一次五個年으로 不充分할 때는 第二次五個年까지 하자는데 對하야 蘇聯은 最高五個年으로 하자는 代案으로써 決定하엿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蘇聯案이 美國案과 五十步百步란 것을 認定치 안흘수 없다. 차라리 最高五個年이라는 期限附도 하지말고 託治를 거치지 아니하는 獨立承認案을 提出決定하엿드면 우리 三千萬民族은 蘇聯에 對하야 感謝를 드렷슬 것이다. 그런데 莫府三相會議決定이 우리 서울에 發布되자 該案中에 規定된 託治制에 對하야 朝鮮民族은 이것을 죽엄으로써 反對하게 되엿다 그 反對의 理由는 異民族의 壓迫에서 四十年동안이나 呻吟하든 朝鮮民族으로서는 「카이로」 「포쓰담」宣言公約에 依하야 自主獨立이 實現되기를 苦待하든 남어지에 絕對反對함은 民族的理念과 感情에서의 當然한 發露이고 秋毫라도 다른 것이 介在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託治案을 그 누가 提案決定하엿는지 물어볼 餘暇도 없이 絕對反對할 뿐이다 蘇聯에서 提案하엿는지 美國에서 提案하엿는지 그 眞相의 糾明은 他日로 미루고 于先 託治만을 먼저 反對하는 것이 곳 우리 三千萬의 民族的 決心이다 美國이 提案하엿으니 默認하고 蘇聯이 提案하엿으니 反對한다는 우리 民衆指導者는 한사람도 없엇다 오직 그런 分子가 잇엇다면 所謂 朝鮮共產黨指導者들이 託治의 提案이 美國側의 것이라는 報道를 드럿을 때에는 絕對反對의 態度로 民衆을 動員하다가 蘇聯이 提案하엿다는 報道를 보고는 態度를 豹變하야 無條件支持하야 託治를 反對하는 民衆心理를 惡用하야 反託으로 民衆을 動員하고 託治支持로 「데모」行進을 敢行한 結果로 民衆을 愚弄欺瞞한 馬脚이 露出되고 大衆의 忿怒와 惡感만 招致하야 大衆과 相離하게 되엿다 (계속)

蘇聯代表스將軍發表한 타스通信報道內容

(三) 入京後最初의 記者團會見에서

지난十六日부터 서울에서 열린 美蘇共同委員會에 蘇聯首席代表 스티코프大將은 지난二十六日午前十一時 그宿舍 朝鮮호텔에서 入京後처음으로 新聞及通信記者團과 會見하고 그席上에서 蘇聯通信「타스」의 電文을 다음과 가치 發表하엿다

─ 둘재로 ─ 美國議案에는 朝鮮에 後見制를 設定하기 爲하여 四個國(美英蘇中)의 行政機關을 創設하되 그行政機關은 반듯이 高位全權委員과 또는 以上에 指摘한 四個國代表로 成立된 執行機關을 組成하야 議會를 經由하여 自己의 全權과 任務를 遂行할 것을 提議하엿다 美國議案에는 朝鮮에서 後見이 實施되는 동안 行政機關에 執行權 立法權及裁判權을 委任할 것이엇는데 그議案에는 朝鮮臨時政府樹立에 對하여는 言及하지 안헛다 蘇聯政府議案에 依하여 모스코바三國外相會議에서 決定에는 아조 問題가 달리 서고 잇엇다 이 決定은 朝鮮民族政府樹立을 延期하지 안흘뿐만 아니라 오히려 蘇聯과 美國代表側에서 朝鮮臨時政府樹立에 協助할 것을 豫見하엿다 이와가튼 目的으로 蘇美協同委員會를 成立하기로 決定하엿는데 이協同委員會는 반듯이 朝鮮의 民主主義政黨과 밋 民主主義的社會團體와 協議하여 朝鮮政府樹立을 讚하여 朝鮮의 臨時政府에 援助할 것이다 이와가치 四個國後見은 朝鮮臨時政府와 그의 協議下에 實施될 것이니 이것은 반듯이 朝鮮人民의 民族的利益을 保障할 것이다

─ 세재로 ─ 美國議案에는 朝鮮에 五年期限의 後見을 設定하기로 提議하엿으며 또 이 後見의 期限을 또 더 五年동안 延長할 수 잇음을 容許하엿다 이와가치 朝鮮에 對한 四個國의 後見은 十年동안이나 繼續할 수 잇엇다 蘇聯政府의 提議에 依한 三相會議決定에는 後見期限이 단지 五年동안으로 規定되엿으니 이러케 됨으로 더 長期間동안 後見이 계속될 것이 取消되엿다 (끗)

美蘇間意見一致

朝鮮의 完全獨立에는

타스通信에 對한 李承晩博士談

타스通信을 가지고 記者團이 病臥中에 잇는 李承晩博士는 다음과 갈이 말하엿다

兩國의 通信을 보면 美國은 美國대로 朝鮮의 完全獨立을 主張하엿다 하며 또 蘇聯은 蘇聯대로 朝鮮獨立을 主張하엿다 하니 오로지 完全獨立만을 宿願하는 우리 三千萬民族으로서는 이우에 기뿐 道理가 없다 다만 四黨會議에서 共產黨이 託治를 排擊치 안는다 하엿는데 이 機會에 조흔 反省이 잇슬줄 안다

이란 新首相決定

「테헤란」二十六日發合同 「이란」議會는 二十五日 「하키미」氏의 後任으로 「쿠아밤 에스 살타네」氏를 新首相으로 選出하엿다 氏는 今年 六十五歲라 한다

횡설수설

▼日帝의 虐政下의 殘滓 親日派 民族反逆者 떼들만큼 엇다 好歌도 長唱이면 不樂▼朝鮮을 먹은者는 日本이 아니라 朝鮮이요 朝鮮의 解放은 八·一五以後가 아니라 以前▼庚戌合邦을 주한者 一進會人 一進會人도 朝鮮의 한 分子라 朝鮮을 먹은 者는 朝鮮▼七·七蘆溝橋의 波砲一發─그것은 朝鮮解放의 第一聲─누구의 先手인지 日中不決이나 朝鮮은 坐受其德▼그러므로 우리의 自由風이 原子彈 爆風의 餘風으로 보는것 近視眼▲或者曰 朝鮮解放의 元勳은 東條라고 그말도 그럴듯 또 가로대 日本을 投降케 한것이 朝鮮이라고▼大陸侵略의 사다리가 되어 日軍을 自殺의 길로 굴러너은것이 朝鮮이 아니냐고▼그말도 됨말이나 이리부치고 저리부치는 辯客은 辯客이요▼心血을 朝鮮에 바처온 政客을 먹는 政客은 없기를 切望

一日一詠

◇託治問題 미닥질이 낫다 그것이 조흔 贈物이엇다면 내가 하고 너 싫것

◇私心은 버릴것이 雜念은 없앨것이 매양에 이로하야 天下事 틀니나니 大丈夫 是是非非를 分辨못해 될는다 (新·岸曙 金億)

◇新作歡迎 一人一首限

一路邁進自主獨立 馬山(其三)

馬山府壽町 金錫桂

馬山府壽町 李尙鳳

馬山府元町二二〇 共同被服社

馬山府萬町 孫亨業

馬山百貨店 姜泰鎬

馬山府石町 姜仲醫 姜主

馬山府壽町 金再守

朝鮮貨物株式會社 馬山營業所

朝鮮料理 漢陽館 金

"義敎"는 自力으로實行

他力依存말고 民力으로나가자

每年經費十一億圓豫想

다가치배우자 | 우리는무엇보다도 만히배워야한다 이에조선교육심의회에서는 二十六일 군정청제一회의실에서 교육심의회를열고 새조선의의무교육에대한 심의를하였는바 의무교육이란 가장긴급한문제인만큼 만장일치로원만히가결되었다 이안은 六년이내에 학령아동을전부 수용하려는것으로 짜아래세운것인데 매년경비는 약十一억원가량이될것으로예상된다 이경비는 국가보조로하지만 의무교육을예정대로 완수시키기위하야서는 타력적(他力的)인보조만에 의존하지안코 각지방의 만민의 노력과성력에따라 자주적인 실천을하도록된것이 가장새로운다 이에 동회의에서는 그실행방침으로 의무교육실시촉진위원회를 중앙과 각도 부읍면등 지방에 설치하기로하여 제一차로 그준비회를 二十九日학무국에서 열기로되엇다 이로서 의무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교육이념에 따르고 애국심을 길러 새나라의 바탕이되게하려는만큼 그성과는크게 기대되며 일반의 적극적인 협조가요청되고잇다

腦裏서 '日帝' 抹消

成人啓蒙隊各地巡回

학무국에서는소국민의의무교육안과아울러 이지것입본식교육이념에젖은전인구의八할인성인(成人)할의재교육에새로운방침을가지고지도에힘을쓰기로되엇다 성인교육이란혼란에빠지자한말바탕안코 확고한신념이업는대중에정신적계몽으로서 조선민족을각성시키려는것이다 아는압시부터각도성인교육책임자들어모이여 무차협의한결과우선각도에성인계몽운동이르키기로하야 각도에강사를파견하기로되엇다

이강연은오는 二월六일부터 三월二십三일까지 각지에서열리는데 각도별일자와 강사는다음과갓다

◇京畿道 二月六日|二月十八日李儀風(揚州, 水原, 利川, 驪州, 安城) 二月六日|二月二十日 李元協(開城, 長湍, 龍仁, 廣州, 加平, 金浦)

◇忠淸北道 二月六日|二月十八日 李成蕃(主로郡部에서講演) 三月十四日|三月廿二日 閔寅燮(閔氏는上旬日에 鎭川, 忠州, 淸州, 永同, 四郡會場別個로巡回함)

◇忠淸南道 二月六日|二月十五日金咲起 崔秉協(二氏各々別個로 主로郡部巡演) 三月一日|三月十一日 魔貴奕(魔氏는上旬日에 大田 天安 溫陽 瑞山의 四郡會場別個巡演)

◇全羅北道 二月十八日|二月二十六日 鄭貴奕(鄭氏는上旬日에 全州 井邑 裡里 群山 四郡會場巡演)

◇全羅南道 二月四日|三月十二日朴搭默(全郡部會場巡演)

◇慶尙北道 二月六日|二月十五日 魔貴奕(魔氏는上旬日에 大邱 金泉 慶州 安東 浦項의 五郡會場巡演)

◇慶尙南道 二月卅日|三月三日 鄭寅奕(鄭氏는上旬日에 釜山 馬山 晋州의 三郡會場巡演)

◇江原道 二月十一日|二月二十五日 鄭再璟(全郡部巡演)

不急한旅行謹愼

二月부터車票發賣制限

해방이후 쏟아져나온여객으로 서울정거장은 비좁한각정거장에는 여행자가 범처고잇는 작금의수송상태를 완화하고자 교통국에서는 불급불요한여행을 제한하기로되어 二十九일오전十시 교통국에경성역 철도사무소 여행사등의 관계자를초청하야 기술부면을 협의하기로되엇는데 차표발매제한은 二월상순부터 실시예정이다

戰災民에交換된

一億圓의巨金

해방후 해외에서 도라오는 동포들에게 부산(釜山) 군산(群山) 목포(木浦) 인천(仁川) 등지에서 一인당 칠십식교환해준 액수에대한 조은(朝銀)조사에의하면 우리돈 [illegible] 을관과하엿는데 八월이후현재까지 조은(朝銀)에서 三十六억四천六백만원이란돈을 발행하게된 큰리유의하나이며 특히十二월조은중발액 一억七천만원중 년말자금(年末資金) 七천원을 제외하면 一억원이란돈은 모다전재민을위하야 발행한것이다

太極旗에朝禮

(2) 자라나는우리海兵

아침햇빛아래에 펄럭이는「태극기」|그원심을향하야 젊은의용자의 눈동자…유울히 바다곳까지 울리는「라팔」소리 마추어 경건한 젊은이의 잡아다르는 바주옵하라고 늙하오르는 우리「태극기」를 우러러 바라보는 이곳젊은 군상들은 오직한몸을조국에 바처려는한

가지 정열로 한데뭉처고잇는것이다 아침조례(朝禮)시간아다 오줌아침도 물음어잇는 식정부는 겨울바다머리에서 조례는 시작이되어 먼저 국기를계양하는것이니 오늘하루의 우리해방병단의일과는「태극기」에 몸을바처려는 임편단심의 맹세로서 시작이되어 태평양으로 인도양으로 연결된 이땅의 수호에 장차활약할 모든기초적인훈련이 전개되는것이다 (사진은 진해조선해방병단의 아침조례광경)(海本社寫眞班撮影)

捕盜에警官殉職

淸凉里서交火, 賊彈에二名死傷

妙齡女까인拳銃强盜團

남녀十三명으로된권총강도단은 동대문서원의하생적수사활동으로 二十八일새벽에일망타진되어 방금엄중취조중이다 |즉二十七일오후十一시二十분경 청량리(淸凉里)모처에 강도가침입하엿다는정보를듯은 동대문서에서는 즉시(朴)사법주임지위하에 무장경관대를 현장에파견하여 포위체포한다음 「채금(三五)의집과 중노五정목조선여관(香川旅館)을 몸을습격하여 일당十三명과권총三개 단도一개 탄환포입수개가맘을리엇는데 강도단의발포로인하야 동서원一명은무참히도치안의순직이되고 또一명은중상을입고입원가료중이며 강도一명도즉사하엿다 그리고이강도단가운데에는박산옥(朴山玉)이라는묘령처녀도끼여잇다

神學校再開

감리교회(監理敎會)에서는二十五일 동회신학교(神學校)강당에서 대표자 백五十여명이 모혀 신학교개교(神學校開校)와염회(年會)문제를 토의한 결과 신학교는 곳개교하기로하고 연회는 四월까지 연기하기로하엿다

飮食店너무만타

本町署서取締

지내본정서(本町署)관내에잇는 음식카페 카바레 요리점 기타 음식점은 현재약四백개소인데 이것은 제약四백개소 [illegible] 인데 이것은 [illegible] 만한가을 [illegible] 허가업시 개업중이며 이외에도 경찰서의 정식인가를 엇지안코 영업하고잇는 음식점이 약四백개소나된다 본정서에서는 방금무허가음식점의 취체를진중이며 유처취체법을 영업자三백명 [illegible] 조종중이다

新紙幣不遠出現●

해방후 거래장아 조치 [illegible]

日政府의無誠意로

朝鮮에石炭輸送遲々

(東京二十八日發) 일본정부는 부산에 이미 비상이다 「맥아더」사령부는 일본정부가 조선주재미군이 요구하는 석탄수송이 비지연되고있는 사실을 비난하였다 작년九월二十五일미군의 석탄요구량은 매월七萬五천톤이엇는데 작년十二월엔 四만九천五백톤이고 一월엔 겨우六천五백톤에 지나지안앗든것이다 일본정부는 부족으로 인한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맥아더」사령부의 언명에의하면 부산(釜山)의기게 천이부족과 노력부족은 방금완전히 해소되야 매월七만五천톤이상의 석탄도 수용할설비가 되여잇다한다

遊興街만은繁昌

느느니料理집 나오느니油頭粉面

"蕩子"의汚名, 自肅하자

해방후 가장 호화롭고 풍성풍성하여진것은 유흥가다 요리점 음식점 기생들이 八월十五일이후 우후죽순처럼 엿다 즉해방전에 시내에는 조선인경영 일본인경영합하여 소위 요리점이라는것이 十여처에불과하든것이 해방후서울 시내에는 전일본인경영하든 요리점까지합처놓고 거정만하여도 서울삼화(三和) 한성(漢城) 각조합원이 五백여명이라한다 요리점의 수입은 일몰이 三, 四만와대를 내리지안코 기생들의 수입도 일야 三백여원대를 넘는다하니 그래지언 수없다 [illegible] 하는 못하야 위조니 사건이니 하는 항간의오해를 낫고잇스므로 이를해결키위하야 노력중이든 조은(朝銀)에서는 二十六일 다량의 조허를수입하여 인천(仁川)에서 운반하고잇는데 새지폐도불원간 인쇄개시 [illegible]이다

拳銃强盜團送局

一黨十五名

시국을빙자하고 각처로다니며 권총으로위협하여 다수의 금품을강탈한 권총강도단을 시내마포서에서체포중이었는데 二十八일一건서류와 함께송국하였다 사건은주범주소부정 김진갑(金晋甲)(二三) 은 모경관원이라고하고 군자금을모집한다하며 시내삼청정三五의一七 삼도림업사사장(三島林業社長) 사택을두로 시내十七개소를다니며 현금十여만원을강탈하엿다 여죄를 지한동서 서원은구함二十

貨物列車盜團

機關車夫等十三名

경성 기관구선호수(煥手) 김구면(金九淵)을수괴로 기관수 선호수등十三명의하종 절도단은제작년十二월二十일경부터작년十二월二十七일까지 서울 一원산 영등포역 구내에 정차중인화차에서 철도연선에서 휘저서 종착품을절취하여 관처로 영등포신길정十번지 이운도(李套道)의집에 리하여 의상빙 [illegible] 하는 조사만 [illegible] 하였다 범인들은 그十七일 동대문서에 검거취조중 그十八일에송국되엇는데 절도 물품은 모다 간부종여관계를하엿다한다

담배增配

담배가三월一일부터 일반에게 증배된다 그동안담배만은 「라이스페퍼」부족으로 인하야 권연제조에 지장이잇섯스므로 一인당 일곱개박게 배급치못하엿다 이달중에 이번전매국에서는 미국에서 담배마는조히를 다량수입케되엿스므로 三월부터는 一인당 하로분열개식배급키로되엿다

國事는多端한데—

軍政廳「뉴-스」

交通運輸部 군정청내 화이트·호어스 전화교환대에 근무할교환수 二十명을 모집중인데 지원자는 체신국통신과에 원서를지참하기바란다

電報는國語로만

체신국에서는 오는三월一일부터 일어전보를전면적으로 폐지하기로되엿는데 요지음중앙전신국에 접수되는 일어전보는 九할이나되는데 이대로 나아가면 일어전보는 자연소멸될것이다

海岸警備隊設置

국방국장 「채미쓰니」대위는 사설조사단체 해산에대하야 다음과가치말하엿다 사설군사단체의 해산은 도경찰부의 억제로서 극소수로제한,다수 단체는해산하엿다 명령불응하는자는체포되여 기소될것이다 국방경비대를 모집하고저 미군이 남선각지에 파견되엿는데 여러사설군사단체의 단원이국방경비대원에 다수지원하고잇다 국방경비대는 정치운동을 떠나 국내치안확보에 진력을다하도록 하는것이다 결국 국방경비대와 경찰 해안경비대는 조선에잇서서 유일합법적 무장단체이다

횡설수설

◇要 一月二十九日(火曜日) 舊十二月二十七日 ◇日氣豫報 癸天後一時晴天이고바람은 弱하게불다

산천진미는 못먹어도 하루두끼니죽은 숫례를올 떼어야만하는게 이땅인민들의 최저생활이 되는것▲전에는 대석평 차취에 간재공출에 흉년이 들고 해방이옷 는 왜적놈이 딸녀나고롱 석탄이 흘려 이렇서도 八, 一正점 보다 더어려워진게 식량 난▲조선의면역 하루주식 쌀은 쌀파잡곡 산해진미 도아니오 이땅에서제일만 히 생산되는 쌀과잡곡▲ 이 땅장정을 고향쳐편 구정을 쌀떼에 돌기업다▲ 거듭말하거니와 애국자만 으로는 해결을못할것이 식량난!

一路邁進自主獨立

馬山府石町 光山商會

馬山府石町 興日商會

馬山府石町 朴載根

馬山府元町六〇 李學喆

崔益鎭耳鼻咽喉科
朝鮮호텔 國民電話本局(?)三八七番

自主獨立信託反對

各種有名賣藥 衛生材料 高級化粧品 散賣部

八九藥房
서울市진고개三의六七 電本局四二二六番

男女從業員募集
一、事務員 中等學校卒業程度以上의男子
一、守衛 警官又는守衛前歷者
一、販賣員 男女 十八歲以上 國民學校卒業程度以上
右候待遇優良함 希望者는 履歷書持參本人來社面談하시오
京城鍾路 株式會社 和信

團劇歌羅美羅
解放以後 朝鮮歌劇界의巨彈! 新演出! 照明! 延百三十名의登場
31日 夜間부터
大歌劇 麻衣太子 十二場
民劇 피리부는마을 三景
舞踊 裝置 音樂 文藝 宋…
(29日30日)

會大話史의界樂
1 黨爭과革命 尹白南先生
2 壬辰倭亂 尹白南先生
3 解放秘話
每日話題交換 晝夜2回